

4·16 이후의 교육은 어떻게 가능한가?

교육의향

하정호

광주교육시민 협치진흥원 과장



봄은 사월과 오월을 지나 어느덧 유월로 접어든다. 별이 쏟아지고 녹음이 짙어지는 사이 농부들이 갈아놓은 논밭에서 새싹이 오르고 개구리 울음 소리가 들린다. 다들 다가올 여름을 분주하게 준비하지만 정치권만은 하루가 다르게 뒷걸음치며 정국을 혼란으로 몰아가고 있다. 채상병 특검을 받아라, 못 받아라. 김건희 여사 특검을 받아라, 갈아엎은 수사팀의 결과부터 지켜보자. 그러는 사이에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가 여덟이나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정부가 인정한 전세 사기 피해만 해도 1만7000건에 이르지만 입법 실책에 대한 책임은 누구도 지지 않고, 효과 있는 대책에도 합의하지 못한다. 의대정원 한답시고 병원조차 못가 받을 구르고, 한편으로는 재수생, 대학생만이 아니라 직장인 의대반까지 생겨 의대 입시에 몰려든다. 너의 고통이 나의 기쁨이 되는 아수라장이 벌어지고 있다.

지금 우리 정치는 입법, 행정, 사법의 모든 영역에서 무리지는 자들이 자기 배 불리기 위해 공권력을 농단하고 있어도 이를 견제할 수 있는 힘조차 없다. 그나마 서로를 물고 뜯는 사이 법조계와 정치인, 기업인들 사이에서 벌어진 추악한 뒷거래와 범죄행각들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는 것이 보잘것없는 소득일 수 있겠다. 그래도 주류언론, 유튜브 할 것 없

이 연일 여야의 정치인들을 도마 위에 올리고 난도질하는 것을 기꺼워하는 것으로 위안 삼을 수는 없다. 그렇다고 해서 당장 금남로로, 광화문으로 뛰쳐나가자는 것도 아니다. 문재인 정부가 촛불혁명을 꺼트리려는 것을 보면서 그런 기대는 진작 접었다. 내치와 외치를 모두 망치고도 지금의 대통령이 자리를 부여잡고 있는 것은 8할이 문재인 정부의 탓이다. 다음 대통령이 지금보다야 조금 더 낫겠지만 그렇다고 우리 삶이 눈에 띄게 나아지리라는 기대는 없다. '이생망'은 몇몇 젊은이들이 겪고 있는 심리적 고통의 문제가 아니다. 미래에 대한 희망과 도덕적 기준조차 잃어버린 우리들의 정신적 공황상태를 이르는 말이다.

올해로 세월호 참사 10주기가 되었다. '4·16 교육체제'를 말한 지도 곧 10년이 된다는 얘기가. 2016년 4월20일, 세월호 유가족 대표, 단원과 등 학생 대표들과 소위 진보교육감 5명이 손잡고 '4·16 교육체제'를 선포했다. 선언문에는 대구·경북·울산을 제외한 전국 14개 시도 교육감들이 서명했는데, 당시 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이 장휘국 전 광주시교육감이었다. 교육감들은 입시와 경쟁 교육에서 벗어나 아이들을 살리고 공동체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는 교육, 공공성과 민주성을 기반으로 한 교육 시스템 구축, 교육으로 안전하고 행복한 사회 시스템 만들기 등을 새로운 미래 교육체제로 제시했다. "왜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는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1년여 고통스러운 성찰의 결과"라고 말했지만, 그 뒤로 별로 달라진 것은 없었다. 각종 안전 규제로 청소년들의 체험활동과 봉사활동이 줄어

들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는 입시마저 수능 비율을 높이는 것으로 후퇴했을 뿐이다. 점입가경으로 조국 사태는 생기부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마저 무너뜨렸다.

1995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5·31 체제'를 대체하겠다는 '4·16 교육체제'의 260개 세부과제를 하나하나 읽으며 얼마나 설레었는지 모른다. 수능 절대평가제 도입과 자격고사로의 전환, 대입 추첨제 전형 도입, 교과서 자율발행제 등이 당시의 주요내용이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기대는 절망으로 바뀌었다. 그래도 침몰하는 세월호에 갇힌 것처럼 마냥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신가동 재개발구역 안에 버려진 농협창고 건물을 주민들과 함께 아이들 놀이터로 바꾸고 그 '예술창고'에서 아이들을 돌보기 시작했다. 몇몇 지인들과 마련했던 청소년 플랫폼 '마당집'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교육청이 나서지 않을 때 주민참여예산으로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을 제안해 시정의 예산 5억원을 확보했다. 신가동이 재개발되면서 예술창고는 없어졌지만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은 60개의 마을학교로 이어지고 있다.

며칠 전 인천시교육청의 미래교육위원회와 교육연구소 분들이 광주교육시민협치진흥원을 다녀갔다. 전국의 시도교육감들이 함께 지역의 교육거버넌스를 법제화해 단체장이 바뀌어도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자고 한다. 좋은 제안이다. 하지만 그런 제도가 없어도 아이들과 시민들이 스스로 자신들이 바라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힘을 키워가는 것, 풀뿌리를 더 굳건히 내리는 것이 4·16 교육체제를 만드는 더 좋은 방법이다.

社說

국민연금 개혁, 21대 국회가 결단 내려야

김진표 의장, 임기내 처리 강조

김진표 국회의장이 26일, 21대 국회 임기 내 연금개혁을 반드시 마무리 지어야 한다고 했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면 '원포인트 본회의'를 열겠다는 것이다. 국민연금 개혁안은 많은 논란이 있지만, 국가와 사회의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꼭 국민에게 필요한 법안이다. 모든 세대가 공정하고 지속 가능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다.

현재 9%인 국민연금 보험료율과 42.5%인 소득대체율을 유지할 경우 국민연금은 오는 2041년 적자로 돌아선 후 2055년 소진된다고 한다. 김 의장도 '지금도 현재 하루 856억 원, 매월 2조 6000억 원, 매년 30조 8000억 원씩 미래세대의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은 22대 국회에서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민회힘 추경호 원내대표는 '연금쇼'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이날 '3일 만에 대타협하기엔 시간 부족'이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민연금 개혁은 정당을 떠나 여·야 정치권이 모두가 공감하는 사안이다. 지난 18개월동안 20억 원에 가까운 국회 예산을 들여 공론화 작업을 진행했고 지난 26년간 유지됐던 보험료율 9%를 깨고 13%로 인상키로 합의하는 등 상당한 의견 접근도 이뤄냈다. 3일 밖에 남지 않은 21대 국회가 연금 개혁을 마무리 짓지 않으면 개혁 시점이 4년 이상 더 밀릴 가능성도 높다. 김 의장도 '어렵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에 대한 의견 접근을 이뤘는데 또 미룬 것은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다.

이번 연금개혁안은 기금의 소진 시점을 늦출 뿐 기금 고갈을 막는 근본 처방이 아니다. 그렇다고 한시가 시급한 개혁안을 22대 국회로 다시 떠넘길 수는 없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21대 국회의 마지막 결단을 촉구한다. 김 의장의 설명처럼 사회 각계와 여·야가 모수개혁에 대해 어려운 합의를 했는데 이 기회를 살리지 않는 것은 국회가 국민에게 죄를 짓는 것이다. 17년만에 찾아온 연금개혁의 골든타임이 이제 3일밖에 남지 않았다.

윤 대통령, 민생토론회 조속히 개최를

강기정 시장, 대통령실에 건의

4·10 총선으로 중단된 민생토론회의 개최 요구가 커지고 있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지난 24일 용산 대통령실을 찾아 광주시 주요 현안에 대한 정부의 협조와 조속한 민생토론회 개최를 요청했다. 이날 강 시장은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수록, 인공지능 2단계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 지역 현안을 건의했다. 강 시장은 이날 대통령실 정진석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홍철호 정무수석, 김명연 정무1비서관을 차례로 만났다.

이날 강 시장은 첨단산업 육성을 위한 '인공지능 실증밸리 조성 사업(AI 2단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반도체 특화단지 조성 기반 마련을 위한 'AI반도체 통합검증센터 구축'을 건의했다.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복합쇼핑몰 입점 예정지 일대 교통인프라 신속 확충'과 '국립 현대미술관 광주 관 건립', '광주 평동 군현리장 폐쇄', '민·군 통합공항 이전 추진' 등 지역 숙원사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적극적

인 노력과 지원도 요청했다. '2026년 지방선거와 동시에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원포인트 개헌'에 정부가 힘을 실어 줄 것도 촉구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올해 초 시작한 민생토론회는 광주를 비롯해 경북, 전북, 제주 등 4곳만 이뤄지지 못했다. 정부는 미개최지에 대한 민생토론회를 재개하겠다고 밝혔지만 시기는 확정되지 않았다. 또한 윤 대통령은 3년 연속 찾은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지역현안을 언급하지 않았다.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수도룩한 광주시 입장에서 애가 탈 수밖에 없다. 현재 광주시는 윤 대통령이 주재하는 민생토론회를 준비중인 상황에서 오죽했으면 강 시장이 직접 대통령실을 찾아 건의했을까.

지역 현안인 인공지능 대표도시, 복합쇼핑몰 유치, 도심 광주공항 이전과 5·18정신 헌법전문 수록 등은 대통령이 약속한 공약들이다. 지방소멸의 극복은 수도권과의 양극화를 극복하고, 지역 도시경쟁력을 갖추는 길이 유일한 해법이다. 대통령과 함께 광주의 민생과 현안을 논의할 수 있는 민생토론회 개최가 시급하다.



사진으로 보는 세상

25일(현지시각) 우크라이나 하르키우에서 소방관들이 러시아군의 유도 폭탄 공격으로 파괴된 대형 건축자재 상점의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

AP/뉴시스

서석대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살지"라는 말이 있다. 한 없는 낙천성을 보여주는 속담이 아닐 수 없다. 제 자리에 있어야 할 무언가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할 것 같지만, 어떻게든 해결하게 된다는 긍정성과 희망이 담겨 있다. 미국의 과학자 겸 정치가 벤자민 프랭클린(1706~1790)은 "희망만을 먹고 사는 자는 굶어 죽을 것이다"라는 어록을 남긴 바 있다. 현실적인 목표에 더 집중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 전설적인 그룹 너바나 리드싱어 키트 코베인(1967~1994)은 "태양이 사라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한 줄기의 빛이 내게 비취겠다"라는 명언으로 많은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심어줬다.

무언가 실패했다고 해서 주저앉을 필요는 없다. 자신에게 없는 것보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먼저 생각하면 된다. 상황을 탓하지 말고 주어진 상황을 최대한 이용할 줄 아는 것이 지혜다. 프로야구단 KIA타이거즈가 주축 선수들의 줄부상 속에서도 1위를 달리고 있다. 나성범, 황대인, 박찬호, 김도영 등 야수들의 줄부상에 이어 임기영, 이의리, 윌 크로우 등 투수들까지 부상 이탈로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였지만 잇몸 선수들의 활약으로 위기를 돌파해



나가고 있다. 야수 중에서는 프로 5년차를 맞이한 '슈퍼 백업' 내야수 홍종표가 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주전은 아니지만, 백업으로 25일 기준 25경기에 출전해 41타수 14안타 타율 0.341 5타점 7득점 1도루 OPS 0.889 득점권타율 0.444를 기록 중이다. 표본이 적지만 꽤 인상적인 성적으로, 주전 공백을 잘 메워주고 있다. 백업 포수 한준수도 팀의 선두 수성에 기여하고 있다. 개막 전까지 주목받지 못한 한준수는 25일 기준 39경기 타율이 0.313에 이른다. 출루율(0.349)과 장타율(0.427)을 합한 OPS가 0.776이다.

대체 투수들의 활약도 KIA 1위 사수의 원동력이었다. 활동하는 임시 선발로 5경기에 나서 23.2이닝을 소화하며 평균자책점 5.32를 기록했다. 평균자책점은 높지만 지난해보다 한층 발전된 기량을 선보이며 5월 4경기에서 모두 5이닝을 던졌고, 지난 18일 NC전에서는 데뷔 첫 선발승을 따내며 월 크로우와 이의리의 공백을 잘 메워줬다.

KIA의 잇몸 야구가 강하다는 것은 그만큼 탱스(선수층)가 두껍다는 뜻이다. 그래서 KIA 팬들은 올시즌 우승 희망을 갖는다.

최동환 취재2부 선임부장

全南日報	시장·발행·편집인	이재욱	논설실장	이용환	편집국장	박성원
민주주의 구현 진실보도 실천 지역개발 선도	대표전화	(062)527-0015	경영지원팀	(062)510-0421		
	기사제보	(062)510-0331	광고영업팀	(062)519-0710		
	편집부	(062)510-0412	문화체육부	(062)510-0351		
	취재1부	(062)510-0380	온라인뉴스부	(062)510-0461		
	취재2부	(062)510-0394	사진부	(062)510-0391		
www.jnilbo.com m.jnilbo.com	정치부	(062)510-0340				
구독료 월 1만5천원 1부 800원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가-2호 (일간) 우편번호 61474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구독신청 (062)510-0471	광고문의 (062)512-0100					
FAX (062)510-0436	서울지사 (02)725-8890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 독자 의견을 환영합니다 (e-메일) webmaster@jnilbo.com